

#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 성료

담양 레이나CC서 30여명 라운드 이동규·김현숙 회원 남녀 우승 영예 이정배 회장 “친선 도모·화합 의미”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 아카데미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가 21일 담양 레이나CC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는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 아카데미 이정배 총동창회장장과 회원들을 비롯해 이경수 광주매일신문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페리오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회에서는 이동규·김현숙 회원이 신페리오 남녀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이대현 회원은 7타로 메달리스트를 차지했다. 또 니어리스트에는 최선민·김정옥 회원이 남녀 수상자로 결정돼 여행용 캐리어세트 등을 부상으로 받았다. 대회를 마친 회원들은 장소를 옮겨 골프에 잡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 아카데미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가 21일 담양 레이나CC에서 열려 30여명이 라운드를 즐겼다.

여하지 않은 회원들과 함께 만찬을 즐기며 단합된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정배 총동창회장장은 “바쁜 일정에도 많은 회원이 참석, 친선을 도모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해 매우 뜻깊다”며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창조클럽 아카데미 총동창회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데 회원들이 적극 참여해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이경수 광주매일신문 대표는 “총동창회의 여러 활동과 관심이 광주매일신문에도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응원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희중기자

## 5·18 진실 세계에 알린 패리스 하비 목사 별세



5·18의 진실을 세계에 알리며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을 위해 힘써 온 패리스 하비(사진)목사가 영면했다.

21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미국의 인권운동가 패리스 하비 목사가 지난 16일 캘리포니아의 한 요양시설에서 별세했다. 향년 91세.

하비 목사는 1960-70년대 일본 등지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며 한국 인권 문제에 깊이 관여했다.

1980년 5월 당시 한국인권을위한복미연맹(NACHRUK) 실무 책임자였던 하비 목사는 계엄군의 유혈 진압으로 광주의 진실이 은폐·왜곡될 위기에 놓이자 미국 의회와 국제사회에 참사와 한국의 인권 유린 실태를 알리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고인은 이 밖에도 1979년 지미 카터 행정부에 한국 인권 상황을 보고하고 한국 민주인사들의 명단을 전달하며 국내 인권 탄압 실태를 해외에 알리는 데 힘썼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목사님께서 그토록 염원하셨던 인권과 평화의 가치가 이 땅에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며 “오월 정신이 세계 민주주의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상기자



## 광주여대 항공서비스학과 ‘윙 수여식’

광주여자대학교는 “최근 항공서비스학과가 교내 국제회의장에서 ‘2026학년도 윙 수여식 및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예비 항공서비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문 직업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윙 수여식에서는 학생들이 가슴에 윙 배지를 착용하며 항공서비스인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어진 행사에서는 학과 교수들이 축하인사를 전하며 학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비전선포식에서는 학생들이 비전선전문을 낭독하며 각자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글로벌 항공서비스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

행사에 참여한 25학년 정지민 학생은 “가슴에 윙을 달며 항공서비스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자부심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고, 비전선전문 낭독을 통해 꿈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글로벌 항공서비스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선욱기자



## 목포농협, ‘광주·전남 하나로마트 우수농협’ 선정

목포농협은 “최근 농협중앙회 전남본부에서 열린 ‘2026년 광주·전남 하나로마트 선도조합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우수농협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광주·전남 지역 농·축협 하나로마트를 대상으로 지난해 경영 실적과 사업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뤄졌다.

목포농협은 기존 로컬푸드 유통점의 안정을 발판 삼아 지난해 1월 로컬푸드 북항점을 신규 개점하며 지역 유통망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지역 밀착형 매장 운영’ 원칙 아래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주력하며 지역 선순

환 유통 체계를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매년 4회에 걸쳐 로컬푸드 출하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생산 단계부터 철저한 품질 관리를 지원하며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박정수 조합장은 “이번 수상은 조합원과 지역민, 임직원들이 함께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경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지역 대표 유통 거점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혜선기자



## 전남개발공사-곡성중앙초 ‘미래동행 사회공헌’ 협약

전남개발공사는 21일 곡성중앙초등학교와 ‘미래세대와 함께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미래동행 사회공헌 활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전남개발공사가 곡성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추진 중인 ‘곡성형 청년 하우징타운 조성사업’과 연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곡성을 읍내리 일원에 대지 면적 5천789㎡, 연면적 3천549㎡ 규모로 추진되며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2개동 55호를 2027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학생 참여형 문화·교육 프로그램, 어린이 건축학교, 교육부 진로

체험, 공사현장 인근 통학로·보행로 점검 및 환경관리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 대상 그림그리기 대회를 열고 우수작을 공사 현장 외부 가설 헬스 디자인에 반영해 학생 참여와 지역 경관 개선 효과를 함께 높일 계획이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개발 사업과 연계한 미래 세대 중심의 지역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크다”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 광주 북부경찰, 보이스피싱 막은 은행원 표창

광주 북부경찰서는 21일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한 은행원에게 최근 표창과 신고포상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에 한 외국인이 고액 현금 인출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전산상 인출 이력에서도 보이스피싱 인출책과 연관된 정황을 확인하자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해당 인출책을 검거했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범죄 예방이나 국민 안전 보호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양백승 북부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 종사자의 세심한 확인과 적극적인 신고가 피해 예방에 큰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범죄 예방에 기여한 신고자를 적극 발굴해 포상하겠다”고 말했다. /윤찬웅기자

## 순천 남제동 주민자치회, 경로당 이불 세탁 봉사

순천시 남제동 주민자치회는 “최근 경로당 14곳의 겨울 이불 50여채를 수거해 세탁과 건조를 마친 뒤 다시 전달하는 ‘윈스톱 세탁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부피가 크고 무거운 고령의 어르신들이 직접 세탁하기 어려운 겨울 이불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치회 위원들은 전문 업체를 통해 세탁을 진행하는 한편, 이불을 수거하고 배달하는 과정에서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의 인부와 건강 상태를 살피며 지역사회 돌봄망 역할도 톡톡히 수행했다.

박용국 남제동 주민자치회장은 “봄을 맞아 어르신들이 깨끗한 이불로 쾌적하게 생활할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활 밀착형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미란 남제동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웃을 위해 따뜻한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에서도 따뜻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순천=양홍렬기자

## 장흥소방, 어린이집 보육교사 ‘소방안전 교육’

장흥소방서는 21일 “전날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소방서 다목적 강당에서 관내 12개 어린이집 보육교사 88명을 대상으로 ‘유아 안전 관리 및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화재나 지진 등 대형 재난 상황은 물론, 영유아에게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기도 폐쇄나 심정지 등 위급 상황에서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기획됐다.

주요 내용은 상황별 올바른 119 신고 요령과 대피 방법 등이며, 특히 심폐소생술(CPR)과 하임리히법 등 실제 사고 발생 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현장 실습 위주로 진행돼 교사들의 실용성을 높였다.



장흥소방서 관계자는 “2-5세 유아는 위기 상황에 매우 취약해 보육교사의 신속한 초기 대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내실 있는 안전 교육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기자

## 영광경찰, ATM 앞 보이스피싱 예방 스티커 부착

영광경찰서는 21일 “우체국과 농협 등 총 8개 금융기관과 협력해 현금자동입출기(ATM) 앞 바닥에 보이스피싱 예방 3단계 대처법을 담은 ‘안·속·아’ 스티커를 부착했다”고 밝혔다.

스티커는 맞춤형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안(모르는 전화는 안 받고)’, ‘속(입금 전 속지 말고)’, ‘아(아저씨를 댄 112 신고)’의 일환으로 고령층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가로 60cm, 세로 40cm 크기의 대형 미끄럼 방지 소재로 제작됐다.

경찰은 스티커 부착과 함께 금융기관 창구 직원의 고액 현금 인출 목적 재확인, 범죄 수법 전달 시 상시 비치 등 실무적인 현장 예방 체계도 한층 강화했다.



김종신 경찰서장은 “지능화되는 범죄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선 금융기관과 공동 체계를 굳건히 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은 높이에 맞는 체감형 치안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기자

### 인사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광주시지부장 김갑제 ▲광주시지부 사무국장 박석환

### 결혼

▲권영일·최미주씨 아들 오현군, 김준수(광주교통공사 경영본부장)·박미경씨 딸 다솜양=26일(일) 오후 2시 라온제나 강남 8층 플로렌스홀(서울 강남구 학동로47길 5), 010-5266-5250.

### 부음

▲김혜덕씨 별세, 임은희(나주연극협회장)씨 모친상, 김진호(전남예술극단 예술원 이사장)씨 장모상=발인 23일(목) 오전 8시 광주 남문장례식장 303호(062-675-5000)